

SK케미칼, 친환경 수성코팅제 개발

코팅성분에 친환경 요소 적용 ... 포장재 · 인쇄매체 표면 굽힘도 방지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이 친환경 수성코팅제를 개발·생산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수성광택용 소재는 포장용기 표면에 얇은 필름을 형성시키는 재료로 다양한 인쇄물에 최종 코팅재로 사용되며, 코팅액 생산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성한 것이 큰 특징이다.

종전에는 대부분 유성코팅제를 사용해 초광택을 유지했으나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 잔류물이 검출되고 내마모성(내스크래치성)이 약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환경문제를 내세워 식품포장재로는 유성제재를 사용한 VOC 코팅 포장재를 규제하고 있어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SK케미칼의 수성 코팅제는 국내 유명 제과 생산기업들이 앞다투어 채택하며 품질과 기능에 대한 높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수성코팅제는 유성제를 사용한 제품에 비해 광택이 떨어지고 약간 비싼 것이 흠으로 지적돼 왔지만 선두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과감하게 친환경 제품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SK케미칼의 수성코팅제 <스카이본 EW312>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김위진 팀장은 “국내 포장재 시장규모는 1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응용 분야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인쇄포장 매체 뿐만 아니라 피부와 접촉하는 모든 제품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생산공정에서부터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SK케미칼은 앞으로 FDA 인증을 획득한 수용성 코팅제 공급을 통해 관련기업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국내 포장재는 90% 이상이 톨루엔을 주요 솔벤트로 사용한 유성코팅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유성코팅제 사용비율을 60% 이하로 감소시키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9>